

KIA, 준PO 직행 문턱서 제동…최종전까지 간다



롯데에 1-4 패배…올려 5.2이닝 4실점·타선 침묵
오늘 LG전서 3위 마지막 승부…홈 최다 관중 경신

KIA타이거즈가 준플레이오프 직행을 눈앞에 두고 고비를 넘지 못했다. 롯데자이언츠에 달미를 잡히면서 정규시즌 3위 확정 여부는 결국 시즌 최종전으로 넘어갔다.

KIA는 1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1-4로 패했다.

전날 SSG 랜더스를 8-5로 꺾고 3위 확정까지 매직넘버 '1'만을 남겨뒀던 KIA는 이날 준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거머쥔 기회를 놓쳤다.

이번 패배로 시즌 78승 2무 63패 승률 0.553을 기록한 KIA는 리그 3위 자리를 유지했지만, 12일 LG트윈스와의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순위 경쟁을 이어가게 됐다.

KIA는 이날 박재현(좌익수)-한준수(지명타자)-김도영(3루수)-카스트로(1루수)-나성범(우

익수)-김선빈(2루수)-김호령(중견수)-김태균(포수)-박민(유격수) 순으로 타선을 짰다.

선발투수로는 아담 올러가 나섰다. 총 96개의 공을 던진 올러는 5.2이닝 6피안타(1피홈런) 2사사구 5탈삼진 4실점으로 부진했다. 최고 구속 153km/h의 빠른 공을 앞세워 경기 중반까지 호투했지만, 6회 한 번의 위기를 넘지 못한 것이 뼈아팠다.

출발은 불안했다. 올러는 1회초 선두타자에게 2루타를 허용한 뒤 나승엽의 땅볼과 고승민의 볼넷으로 1사 1·3루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한동희를 병살타로 처리하며 실점 없이 첫 이닝을 마쳤다.

이후에는 안정감을 되찾았다. 2회초 삼진 2개를 곁들이며 삼자범퇴로 이닝을 정리했고, 3회와 4회에도 롯데 타선을 연달아 삼자범퇴로 돌려세웠다.

5회초에는 전민재에게 안타를 내줬으나 후속 타자를 삼진과 병살타로 처리하며 무실점 행진을 이



1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KIA타이거즈 투수 아담 올러가 투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KIA타이거즈

여갔다.

팽팽했던 승부의 균형은 6회초 한순간에 무너졌다.

올러는 장두성을 뜬공, 조세진을 삼진으로 잡아내며 손쉽게 이닝을 마치는 듯했다. 하지만 2사 이

후 레이에스에게 좌중간 안타를 맞은 데 이어 나승엽에게 내야안타를 허용했다. 고승민에게 볼넷까지 내주면서 순식간에 2사 만루 위기를 자초했다.

결국 한동희와의 승부에서 결정타를 얻어맞았다. 올러는 볼카운트 1볼 1스트라이크에서 던진 3구째 공을 공략당했고, 타구는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만루홈런으로 연결됐다. 0-0으로 맞서던 경기는 순식간에 0-4로 기울었다.

KIA는 곧바로 올러를 내리고 정해영을 투입했다. 정해영은 전민재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추가 실점을 막았고, 7회초에도 삼진 2개를 포함해 세 타자를 깔끔하게 처리했다.

그러나 타선이 끝내 침묵했다. KIA는 경기 막판까지 롯데 마운드를 공략하지 못했고, 9회말에도 1점을 뽑아내는 데 그치면서 3점 차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날 패배로 KIA는 3위를 확정하고 준플레이오프 직행을 자축하려던 계획도 미루게 됐다. 이제 남은 기회는 단 한 경기다. KIA는 12일 L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정규시즌 3위 수상을 위한 마지막 승부에 나선다.

한편 KIA는 이날 패배에도 구단 역대 한 시즌 홈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쓰며 뜨거운 흥행 열기를 이어갔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는 이날 2만500명의 관중이 입장해 올 시즌 37번째 매진을 기록했다.

이로써 KIA의 시즌 홈 누적 관중은 127만8888명(평균 1만7763명)으로 늘었다. 종전 구단 최다 기록이었던 2024시즌 125만9249명(평균 1만7250명)을 뛰어넘는 신기록이다.

KIA가 한 시즌 100만 관중을 돌파한 것은 2017년과 2024년, 2025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다.

특히 지난 9월 5일 KT위즈전에서 시즌 31번째 매진으로 구단 역대 최다 매진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이날까지 매진 횟수를 37차례로 늘리며 팬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확인했다.

KIA는 12일 시즌 최종전에서 홈 최다 관중 신기록 수립을 기원하고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한 다양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는 11일 2만500명의 관중이 입장해 올 시즌 37번째 매진을 기록했다. KIA는 구단 역대 한 시즌 홈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쓰며 뜨거운 흥행 열기를 이어갔다. 사진제공-KIA타이거즈

‘김세진호 데뷔전’ SOOP 수퍼스, 개막전서 고배



창단 이후 첫 발을 내딛은 여자프로배구단 SOOP 수퍼스가 KOVO컵 개막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SOOP 수퍼스는 11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2026 여수·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 IBK기업은행과의 여자부 개막전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3(21-25 16-25 19-25)으로 패배했다.

김세진 감독은 이날 고예림과 서지혜(아웃사이드 히터), 박연화(아포짓 스파이커), 하혜진과 이즈쉬에(미들블로커), 이원정(세터), 주장 한다혜·유가람(리베로)과 함께 첫 경기를 시작했다. 이날 경기는 김세진 감독의 데뷔전임과 동시에 창단 이후 공식 경기에서 나서는 선수단의 경기력을 살펴보는 무대였다.

이번 경기에서 이적생 고의정과 전세안, 서지혜는 나란히 6득점을 올렸다. 고의정은 3개의 서브에이스와 1개의 블로킹을 만들어냈다. 전세안 역시 블로킹 2개와 서브 1개를 성공시켰

2026 KOVO컵 개막전서 IBK기업은행에 0-3 패
아쉬운 득점력…범실 17개·수비 보완 등 과제

고, 공격성공률 42.86%를 달성했다. 하지만 팀 전체 공격성공률은 25.2%에 그쳤다. 여기에 범실 17개를 쏟아냈고 동시에 수비에서도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과제를 남겼다.

1세트는 시소게임 끝에 상대가 웃었다. 박연화의 퀵오픈이 아웃되면서 선취점을 내준 SOOP은 고예림이 퀵오픈을 적중시키면서 1-1 균형을 맞췄다. 이어 IBK가 4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달아났으나 서지혜의 백어택과 박연화의 서브에이스가 나오면서 4-5로 추격했다. 빅토리아의 맹공을 앞세운 상대는 또다시 4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격차를 벌렸다. SOOP은 고예림, 서지혜, 박연화 공격 삼각편대의 활약으로 21-23까지 따라붙었지만, 상대의 연속 득점이 터지면서 1세트를 내줬다.

2세트는 IBK가 압도했다. SOOP은 서지혜의

서브에이스로 첫 득점을 올린 뒤 상대에게 6연속 득점을 헌납하며 흔들렸다. 11점 차까지 끌려나간 이후에는 전세안의 오픈과 블로킹, 고의정의 연속 서브에이스로 14-22까지 좁혀나갔다. 하지만 상대 빅토리아의 백어택과 팀 실점이 나오면서 2세트 역시 한낱했다.

3세트는 중후반까지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상대는 빅토리아와 최정민이 공격을 주도했고, SOOP은 서지혜와 고의정이 고른 득점을 올리면서 10-10까지 팽팽하게 맞섰다. 이어 전세안의 블로킹과 임주은의 서브에이스가 나오면서 16-16으로 시소게임이 이어졌다. 이후 IBK가 5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분위기를 가져왔고, 19-24에서 고의정의 서브가 라인을 벗어나면서 결국 SOOP의 패배로 경기가 끝이 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SOOP 수퍼스는 11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2026 여수·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 IBK기업은행과의 여자부 개막전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3으로 패배했다.



이정규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31라운드 울산HDFC와의 경기에서 4-3으로 승리했다.

218일 만에 무승 끊었다…광주FC, 울산에 4-3 승

바 루아 멀티포 폭발…아이데일·신창무 득점소

프로축구 광주FC가 가나긴 무승 터널을 벗어났다. 지난 3월 7일 인천전 이후 무려 218일 만의 승리다.

이정규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31라운드 울산HDFC와의 경기에서 4-3으로 승리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28경기 연속 무승으로 K리그1·2 통틀어 최악의 성적을 이어가고 있던 광주는 이날 바루아의 득점포와 아이데일, 신창무의 고른 득점으로 지독한 무승 고리를 끊어냈다.

이번 승리로 광주는 2승 13무 17패 승점 19점을 기록하며 리그 11위 부천(승점 32)과의 격차를 좁혔다.

이날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바 루아와 아이데일이 최전방에 이름을 올렸다. 중원은 신창무, 최경록, 유재호, 하승운을 배치했다. 후방은 권성윤, 민상기, 반 흐론스벤, 이민기가 맡았다. 골키퍼 장갑은 김동화가 꼈다.

전반전부터 난타전이 펼쳐졌다. 전반 27분 상대 에릭이 광주의 골망을 갈랐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고, 1분 뒤 야고의 골 역시 오프사이드로 취소됐다. 하지만 전반 31분 상대 야고가 기어이 광주

의 골대 우측을 뚫어냈다.

광주는 4분 뒤 동점골을 폭발시켰다. 상대 진영 인근에서 이민기가 하승운에게 공을 건넸다. 이어 하승운이 골문 앞으로 연결한 공을 바 루아가 원발로 마무리했다.

전반 38분에는 광주의 추가골이 터졌다. 상대 패널티박스 좌측에서 바 루아가 올린 크로스를 아이데일이 헤더로 연결하면서 득점에 성공했다.

상대는 4분 뒤 반격에 나섰다. 이동경의 코너킥을 김영권이 헤더로 방향을 틀어 골을 만들었다.

결국 전반전은 2-2로 끝이 났다.

후반전 광주는 또다시 득점포를 가동했다.

후반 20분 상대 진영 인근에서 바 루아가 김숙이 패스를 찼고, 1대1 찬스를 잡은 신창무가 그대로 골망을 갈랐다. 후반 31분에는 바 루아가 멀티포를 완성했다. 상대 패널티박스 좌측에서 이민기가 크로스를 올렸고, 바 루아가 집주하며 헤더로 연결했다. 이 공은 울산 골망 구석을 정확히 가르면서 경기는 4-2가 됐다.

후반 추가시간 상대는 추가 골을 넣었지만 결국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고, 경기는 광주의 승리로 끝이 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